장려상



임우진, ‘새로운 형태로 모두의 마음에 스며드는’



정현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양(供養)’



조이환, ‘자비의 등불, 얼음 위에 피다.’



김기현,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시는 부처님’



윤민지, ‘연기의 클럽(Buddha Bounce)’



송우석, ‘ZEN 2.0’



조환희, ‘셰프 부처님 – 2600년 경력의 요리사’



김재원, ‘케이팝 무대 위에 선 부처님’



김진민, ‘부처님의 발걸음’



임병진, ‘부처의 꽃집’

수상자 소감

“불교 가르침 쉽게 전달할 기회”



본지 한명우 대표가 대상 수상자 김하림 씨(사진 오른쪽)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수상자들은 누구나 쉽게 불교를 주제로 창작할 수 있는 장이 열린 데 감사를 표했다.

대상 수상자 김하림(39, 전북 군산) 씨는 “오래전부터 불교의 가르침이 전하는 진리에 마음을 기울여 왔다”며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도구는 저에게 공(空)과 연기(緣起)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창(窓)이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된 것은 그 길 위에서 만난 큰 인연이자 축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대불교 독자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불교적 사유와 예술의 가능성을 널리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우수상 수상자 송찬호(33, 대전) 씨는 “수상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다현(22, 전북 익산) 씨는 “작품이 너무 단순하게만 보일까 걱정했는데, 제가 담은 불교적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아 다행”이라며 “많은 분이 ‘21세기 부처님’을 보며 ‘멈춤의 공(空)간’을 실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씨는 “AI그림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최한 현대불교에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수상자 명단

대 상 1명

김하림, ‘戰火에 피어난 연화 – 無言의 관세음이 전하는 자비’

최우수상 2명

송찬호, ‘디지털 윤회(輪廻) 속, 영원(永遠)을 응시하는 시선’

김다현, ‘멈춤의 공空간’

우수상 3명

송기현, ‘21세기의 부처님, 여행 유튜버’

전수빈, ‘폐허 속의 자비’

박영규, ‘UN 평화대사 부처님’

장려상 10명

임우진, ‘새로운 형태로 모두의 마음에 스며드는’

정현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양(供養)’

조이환, ‘자비의 등불, 얼음 위에 피다.’

김기현, ‘퍼스널 컬러를 찾아주시는 부처님’

윤민지, ‘연기의 클럽(Buddha Bounce)’

송우석, ‘ZEN 2.0’

조환희, ‘셰프 부처님 – 2600년 경력의 요리사’

김재원, ‘케이팝 무대 위에 선 부처님’

김진민, ‘부처님의 발걸음’

임병진, ‘부처의 꽃집’